

# 계란출하 대금 현금결제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

□ 취재/김동진 기자

**I** MF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란업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과거 사료 가격 결제 방법이 대부분 어음 또는 외상거래에서 현금으로 전환된 가운데 일부 채란 농가에서도 계란 출하시 대금을 현금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에 놓여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농가들은 계란대금 결제는 과거 관행을 쉽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농가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리스를 사용하여 시설을

확충한 농가들은 환차손에 따른 이중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료공급 차질로 우왕좌왕 하던 지난 해에 비해 신용장 개설 등의 힘을 빌어 사료공급 원활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되기는 하였지만 사료가격이 환율상승의 여파로 12월 초에 비해 50%가까이 인상되면서 사양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난가가 지난 12월초 특란이 89원을 기록하던 것이 한달이 지난 1월 12일 122원으로 사상 초유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사양가들을 위로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개될 경

기전망이 불투명한데다 나만 버티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생산조절에는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1. 사료값 인상과 생산비 상승

일부농가에서는 사료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사료의 질이 나빠져 생산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농가의 경우 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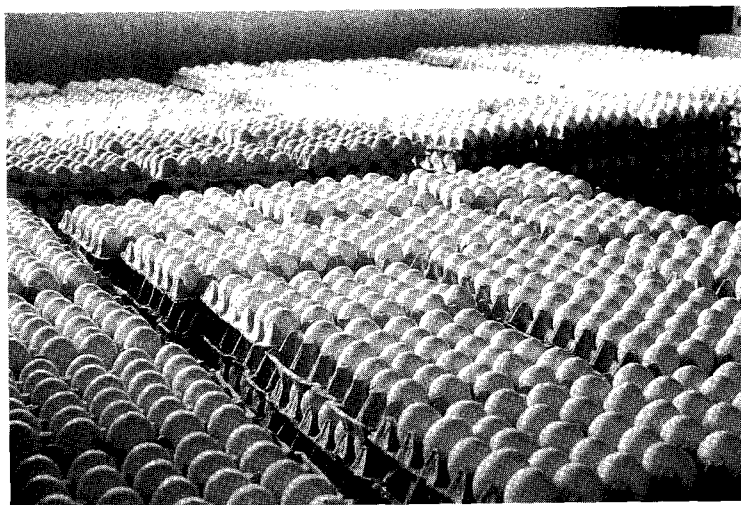
찰구매로 물량을 확보하였으나 가격인상으로 고충을 겪는 것은 차치하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난각이 나빠져 연란 발생이 많아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협회에서 잠정집계한 자료를 보면 사료가격 인상전인 12월 초 계란 1개당 생산비가 63원인데 비해 사료가격이 45%인상 시에는 90원의 생산비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지 사료,약품,기름값인상 이외에 다른 상승요인을 포함시키지 않아 실제 생산비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같은 난가상승은 최종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상품란으로 매장에 판매하는 농가의 경우 20~25%의 가격 상승을 가져왔고 제과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결국 소비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

## 2. 계란 출하대금 정산실태

계란출하는 근본적으로 생산과잉 상태가 계속되면서 이 중시세, 덤핑, 후장기 등의 관행이 깊숙히 파고들면서 가격이 상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환율인상이 되기 전에는 계란이나 사료가격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음결제로 이루어졌으며 계란의 경우 보통 2개월 어음결제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료파동에 따라 사료는 현금결제가 쉽게 이루어졌지만 계란대금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불합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양가들은 당장 사료대금이 현찰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닭을 굶겨야 하는 상황이 도래되면서 농가에서는 현찰거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현금이 부족한 생산자들은 기존 상인들과 현찰거래를 요구

하며 상당지역에서 현금화 추세로 돌아가고는 있으나 생각만큼 쉽게 현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적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2개월 어음을 받던 곳은 1개월, 1개월 어음 또는 월말결제하던 곳은 5~10일 정도로 줄어들었으며 과거 현금결제가 극소수로 이루어지던 것이 평균적으로 70% 정도의 농가가 현금결제로 전환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다운폭이 보통 13원~15원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인들이 외상을 현찰로 거래할 때는 그만큼 다운폭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어 당장 현찰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익없는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농가의 경우 과거부터 계속 거래를 해오던 상인에게 다운폭을 타 농가들보다 2원씩을 더 해주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 편이 오히려 거래처를 잃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래저래 생산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접 유통에 참여하는 농가의 경우도 어려운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상품란으로 한판에 1,400원 하던 것이 매장에서 1,700원으로 가격을 올리는 했지만 사료가격 인상폭에 비해 낮은데다 상인들과의 경쟁을 뚫기 위해서 가격자체를 더 올릴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결제는 여전히 1개월 이상의 어음결제가 성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장에서 사료회사와 계약을 맺고 상품란을 생산하는 K농가의 경우 사료값 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60일 결제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30일 결제로 돌아왔으며 납품가격도 25%로 올려 받고 있다. 이 농장은 다행히 사료회사와 오랜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료가격도 계란가격처럼 어음 결제를 하고 있어 타 농가들보다 유리한 조건에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한 예라 볼 수 있다.

집하장의 경우 보통 2개월 어음을 주던 관례에서 1개월로 단축을 하였으며 만약 1개월이 넘을 경우 이자를 감안

하여 조합원들에게 계산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집하장과 거래하는 상인들도 보통 가계수표 45일짜리를 15일로 줄여 거래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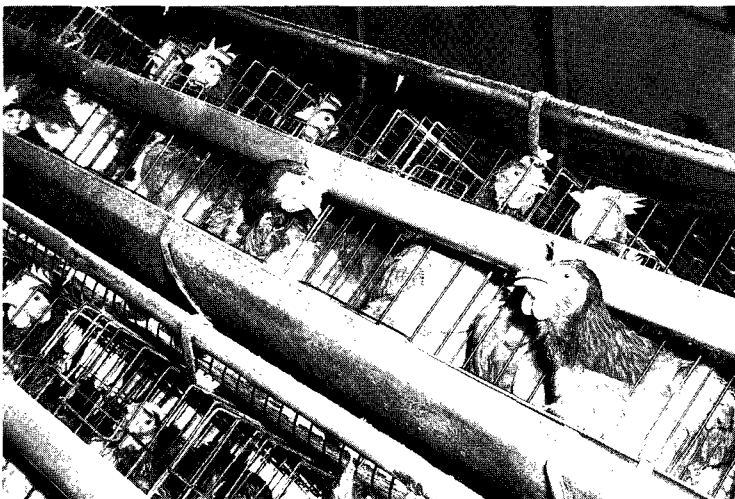
조합원들이 난가가 오를때는 상인들과 직접 거래를하고 난가가 내려갈때는 조합에 납품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상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어 집하장의 부족에 따른 영향력 약화로 조합원들이 이탈하는 것도 요즘들어서의 추세이기 때문에 집하장 운영에 있어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계란유통의 문제점

경제난과 사료의 현찰구매가 가시화되면서 양계산물도 거품을 제거하고 현찰판매는 물론 다운폭도 없어지리라는 예상들을 해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한파로 인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나타나 현금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산자 13개 농장과 거래하고 20여군데가 넘는 매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한 상인에 의하면 어음결제가 앞당겨지고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과거보다 운영자금이 1/3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고시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으로 매장거래의 단절이 우려되어 마음대로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장에서도 결제기간이 짧아지긴 하였으나 현금거래가 10%에도 못미쳐 농가에 현금을 결제한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상인들이 문을 닫는 현상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인하였는데 문제는 이들이 어느 틈엔가 다시 계란유통에 손을 댄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농장 3군데만 확보할 수 있으면 계란장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해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이나 대출 등 온갖 수단을 이용하여 한두번은 농가에 현금결제를 해주고 다음부터 결제일을 늘리다가 경영이 어려워질때 손을 떼어버리는 수법을 취하여 결국 생산농가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들이 계란유통의

취약성에서 초래되는 것이며 가장 큰 문제는 사양가들이 당장 계란출하에만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 정보파악을 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데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 4. 결 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계란유통에서 건전한 상거래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계란의 현찰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후장기, 다운이라는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이런 관행들이 나타난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70년 후반부터 생산자 고시가 생겨나면서 상인들과 주도권 싸움이 치열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8년 7월부터 상인들이 도매고시를 별도로 적용하면서 이중시세는 굳어져 갔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난가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해 생산자들은 '94년 6월에 그동안 고시되어오던 도매고시를 폐지하는데 상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나 오랜 시간동안

이러한 구조속에서 후장기, 다운폭 증가, 외상 및 어음결제 등만을 발생시켜 왔던게 사실이다.

이는 상인들만을 탓할게 아닙니다. 생산자 스스로 과잉생산을 방관해왔으며 정부에서도 유통구조 개선보다 시설투자(양계단지 양산 등)에 혼신을 다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재 고가의 계란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정도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잉생산이 이어지고 저난가 시대가 닥칠 경우 구조조정은 불보듯 뻔하다.

이제는 혹시나 하는 기대심을 버리고 생산성이 낮은 계군이나 노계를 과감히 도태시켜 생산을 축소하는 길밖에는 대안이 없다. 생산이 적어지면 자연스럽게 상인들에게 현금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보증금까지 내놓으며 계란을 가져갈 것이다. 또한 직판장 시설을 확보하여 중간마진을 없애는 작업도 병행해 나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안일하게 바라보는 것은 무의미하다. 생산자들이 의기투합하여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본다. **양계**